

등록번호	문화복지
등록일자	2015.9.22
결재일자	2015.9.22
공개구분	공 개

전문위원	수 전문위원	사무처장
김혜란	이강훈	김진영
협 조		

김진영

부위원장	위원장	의 장	결
	김진영	김시영	재

- 201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

- 기간 : '15.8.17(월) ~ 8.27(목), 9박 11일
- 국가 :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충 청 남 도 의 회
(문화복지위원회)

【 목 차 】

I . 연수개요	2
① 연수개요	2
② 기간 및 국가	2
③ 구성 및 분담	3
④ 세부일정	4
II . 주요 연수내용	6
① 노르웨이 오슬로 복지시설	8
② 스웨덴 보육시설 유아학교	12
③ 핀란드 헬싱키 장애인 재활원	16
④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관광정보협회 ..	20
⑤ 문화·관광시설 비교 견학	22
III . 정책건의	23
IV . 연수를 마치며	25
V . 방문국 현황	36

| 연 수 개 요

① 목 적

- 최근 다양한 형태의 가족 정책수요 증가, 노인·아동장애인 복지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선진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현황 비교시찰
- 각 나라의 복지제도, 문화유산 보존관리, 관광 및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등 선진 시스템을 견학하여 견문을 넓히고
⇒ 선진 외국의 새로운 정책 등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도민의 문화생활 향상 및 복지증진 기여

② 기간 및 국가

- 기 간 : 2015. 8. 17(월) ~ 8. 27(목), 9박 11일
- 국 가 :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 인 원 : 13명(의원 7, 의회사무처 4, 집행부 2)
- 주요내용

- | | |
|-------|--|
| 복지 분야 | ▪ 복지시설의 운영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 보육현황
▪ 취업알선, 장애인고용 정책, 재활치료 등 운영실태 |
|-------|--|

- | | |
|----------------------|---|
| 문화
체육
관광
분야 | ▪ 자연문화유산 등재, 보존 및 관리현황
▪ 관광 인프라 구축, 관광객 유치방안, 관광코스 개발
▪ 박물관 시설물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 운영실태
▪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공공자전거 이용 시스템 |
|----------------------|---|

③ 구성 및 분담

구 분		성 명	업 무 수 행 내 용
문화복지 위 원 회	1조	오배근 (위원장) 윤석우 김원태 김종필	■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파악 - 시설현황, 제도, 프로그램 등 비교 - 재활 시스템, 안전관리, 보조금 지원 등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실태 파악 - 문화유적지 보전, 운영사례 - 문화유산 등재 사례 및 관리 방법 ■ 생활체육시설 운영실태 파악 -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활성화 방안
	2조	유찬중 (부위원장) 이공휘 정정희	■ 공공 박물관 시설 견학 - 시설관리, 시설 운영실태 등 사례 ■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탐색 - 관광 상품 개발, 관광코스 연계 및 자원화 - 관광객 유치방안, 관광 인프라 구축 ■ 방문국 문화 시민의식, 관행 파악 - 나라별 문화, 친절도, 질서 의식 등
의 회 사무처	전문 위원	김혜환	■ 의원 공무국외출장 지원 총괄
	직원	함정엽 김일수 전영수	■ 의원 공무국외출장 지원 및 자료수집
집행부	직원 2명	이승철 정헌웅	■ 충청남도과 선진국의 시책 비교검토 - 복지시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관광 자원화, 박물관, 생활체육 등 운영실태 비교 및 자료수집으로 정책 활용

4 세부일정

일 자	장 소	교통편	일 정
제1일 8월17일 (월)	인 천 모스크바 오 슬 로	SU 251 SU 2538 전용버스	• 인천국제공항 출발 (비행시간 9시간5분) • 헬싱키 공항 도착 • 연결 편으로 오슬로 향발 (비행시간 2시간40분) • 오슬로 공항 도착
제2일 8월18일 (화)	오 슬 로	전용버스	▶ 공식일정 [오슬로 노인복지시설 방문] - 노인복지제도 및 시설에 대한 전반 비교연구 시찰 - 전반적인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질의 응답
제3일 8월19일 (수)	플 롬 구드방겐 게 일 로	전용버스 열 차	▶ 현장탐방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관광자원화사례 탐방] [플롬 ~ 뮌헨 구간 열차 플롬 라인 탐방] [플롬 ~ 구드방겐 구간 선박 승선 송네 피오르드 탐방]
제4일 8월20일 (목)	게 일 로 오 슬 로 스톡홀름	전용버스 열 차	▶ 현장탐방 [오슬로 문화탐방] • 열차 편으로 오슬로 출발, 스웨덴 스톡홀름 향발 • 스웨덴 스톡홀름 도착
제5일 8월21일 (금)	스톡홀름	전용버스	▶ 공식일정 [스톡홀름 어린이 보육시설 방문] - 유아보육제도 및 시설에 대한 전반 비교연구 시찰 - 스웨덴 전반적인 유아정책에 대한 질의 응답
제6일 8월22일 (토)	스톡홀름	전용버스	▶ 공식일정 [스톡홀름시 공공자전거 운영시설 방문] - 청정한 환경, 건강, 교통비 절감 등 사례 - 여행안내소 방문, 운영 시스템 파악 ※ 자전거 대여소 : 시내 67곳 • 이름 : Stockholm City Bike Service • 홈페이지 : http://www.stockholmcitybikes.se/home

일 자	장 소	교통편	일 정
제7일 8월23일 (일)	헬 싱 키	전용버스	▶ 현장탐방 [헬싱키 수오멘린나 섬 탐방] - 세계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사례 - 관광자원화 방안, 관광 상품 개발 파악
제8일 8월24일 (월)	헬 싱 키	전용버스	▶ 공식일정 [헬싱키 장애인보호작업장 방문] -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전반 비교, 연구시찰 • 이름 : Vates Foundation • 주소 : Oltermannintie 8, 00620 Helsinki • 홈페이지 : http://portal.leiden.nl/
제9일 8월25일 (화)	상 트 페테르 부르크	전용버스	▶ 공식일정 [상트페테르부르크 관광정보협회 방문] - 관광 관련 운영정책 및 실태 비교연구 • 명칭 : Saint-Petersburg City Tourist Information Bureau • 주소 : 191023, St. Petersburg, 14/52 Sadovaya st. • 홈페이지 : http://eng.ispb.info/about/ ▶ 공식일정 [에르미타주 국립박물관 탐방] - 다양한 문화재 관리, 보존 실태 파악 • 명칭 : The State Hermitage Museum • 주소 : 34-36 Dvortsovaya Naberezhnaya • 홈페이지 : www.hermitagemuseum.org/
제10일 8월26일 (수)	상 트 페테르 부르크	전용버스	▶ [러시아 시민공원(여름궁전) 견학] - 선진 문화 관광시설 인프라 구축 및 운영실태 비교 견학 - 공원관리사무소 방문 간담회, 시민 생활실태 등
제11일 8월27일 (목)	인 천		• 인천 국제공항 도착

① 노르웨이 오슬로 노인복지시설(Undeberg Omsorgssenter)

- 일 시 : 2015. 8. 18(화), 14:00
- 장 소 : 노르웨이 오슬로 린드베르그 노인복지시설
- 테 마 : 노인복지시설 운영체계 및 복지제도 등

① 시설개요

○ 린드베르그 노인복지 시설

- 법인(Norlandia) 형태의 운영하고 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지사를 운영하고 있음, 운영은 보조금으로 충당
- 노인 150명(정원 200명), 직원 400명(시간제 포함)

※ 노인시설 보조금 구성체계

- 요양시설 입소시, 개인연금에서 75% 공제후 개인지급
- 75% 정률로 공제, 노인시설 운영비 재원으로 충당

○ 주요기능

- 휴식, 치료, 여가, 주간보호, 거주 등 복합 시설로 구성
- 하나의 시설에서 복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 인력은 외국 이민자, 시간제 등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
- 가족이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시설 운영 등
- 시설은 몸이 불편한 사람 위주로 설계 및 시설

② 질의·응답

○ 노르웨이 노인들이 시설 이용 상황은?

- 노인은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인 원칙
- 시설이용자는 몸이 불편할 경우 이용

- 노르웨이 복지시설 제도가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재정적 뒷받침은 주요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 세금으로 하고 있음. 노르웨이의 세금은 한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음. 부가세가 25%, 근로소득세가 36%에 달한다. 자기가 낸 세금을 복지 혜택으로 돌려받고, 67세이상부터 국민 모두가 연금 혜택을 받고 있음
- 복지시설에 모든 노르웨이 국민 모두가 입소할 수 있는지 입소시 특별한 제약사항은 없는지?
 - 시설 입소 희망자는 모두 들어갈 수 있으나, 되도록 집에서 가족들이 오래 보살필 수 있게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시설입소자는 실제 거동불편자들임.
- 시설입소를 꺼리는 경향은 없는지?
 - 다른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으나 대부분 집에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환자와 간호사간 1:1로 보호하고 있어 치료받는데는 별다른 불편한 점이 없음
- 시설입소 절차와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 입소결정은 의료진과 가족들이 사전 정밀 건강진단을 받은 후 상의해서 입소 여부를 결정하고, 비용은 65만크로나 약 1년에 보통 1억원 정도임

③ 시사점

- 시설 이용자 1인당 보조금은 한국 화폐로 1억 정도
 - ※ 중환자는 1억이상 초과(비용은 보조금으로 충당)
- 보조금은 연금과 국가의 세제 정책으로 해결
- 노인지원 제도는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하나 국가의 보조금 지원액에서 월등한 차이, 부유한 국가의 전형적인 모델

노르웨이 오슬로 노인복지시설(Lindeberg Omsorgssenter)



▶ 오슬로 노인복지시설 기념촬영



▶ 시설개요 설명 및 질의응답



▶ 오슬로 노인복지시설 견학



▶ 오슬로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들과 대화

② 스웨덴 어린이 보육시설 유아학교(Forskolan Rabacken)

- 일 시 : 2015. 8. 21(금), 10:00
- 장 소 : 스톡홀름 어린이 보육시설(라바켄 유치원)
- 테 마 : 유아보육제도 및 시설에 대한 전반 비교연구 시찰 등

① 시설개요

- 라바켄 유치원
 - 2007년 설립
 - 법인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스톡홀름 근교에 5개 유치원 운영
 - 어린이 1인당 1달 보조금 1,300천원
- 유치원 운영 방향(유치원 별 프로그램 마련)
 - ① 운동 : 아이들에게 활발한 놀이활동 제공
 - ② 음식 : 양질의 먹거리 재료 제공
 - ③ 클린 : 아이들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 및 깨끗한 공간
 - ④ 창의 : 동기부여 및 아이들 스스로 활동하는 능력 교육

② 질의·응답

- 보육정책 방향은?
 - 보육정책의 기초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 보육정책 세분화
 - ※보육의 국가업무화로 인한 각종 비능률 발생
 - 현재는 비능률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은 민간에 전면 개방
 - ※ 민간운영에 따른 비용은 국가에서 보조금 100% 지급
- 많은 부모들이 유아원을 이용하는지?
 - 경제적 이유로 유아원에 위탁해서 보육하는 것이 다소 유리해 대부분 부모들이 이용하고 있음

- 유아원 기본 운영 방향에 창의성 부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유아의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 특별한 방법보다는 교사들이 아이들의 영감과 동기부여를 위해 강요보다는 자발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교실 실내 장식을 활용해 직접 체험하는 등 프로그램에 전체 어린이가 함께 참여한다는 점이 특별하다면 특별함
- 한 학급당 선생님들이 맡는 유아 인원과 업무강도는 어느정도 되는지?
 - 6명의 선생님이 40명 유아를 맡아 교육을 하고 있음. 선생님들의 근무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보모가 그룹당 1~2명이기 때문에 즐겁게 일하고 있음.
- 유아원 운영시스템과 수익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 경쟁구도가 심해 유아가 많이 오게끔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해야함. 그렇지 않는 경우 조직원의 구조조정 등을 피할 수 없음. 유아원 건물 대부분이 지자체 소유이고 임대료를 내고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상황임.
 - 유아 1인당 지자체 보조는 1~3살까지 150만원, 3~5살까지 120만원 정도를 하고 3~5살까지 무료로 보낼 수 있는데 일주일내 15시간 맡길 수 있음.

③ 시사점

- 보육시설에 민간운영에 따른 법인간 경쟁 가열
 - ※ 비용절감에 따른 식재료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 초래
- 우리나라와는 반대의 보육정책(국공립 → 민간)
 - ※ 한국(민간 → 국공립)
- 스웨덴이나 우리나라 모두 무상보육 실시 국가임, 반면 한국은 최근에 실시, 정책방향을 탄력적으로 운영 필요

스웨덴 라바켄 유치원((Forskolan Rabacken)



▶ 스웨덴 유아원 운영상황 청취 및 질의응답



▶ 시설물 견학 및 질의응답



▶ 기념품 전달



▶ 유아원 선생님들과 기념촬영

③ 핀란드 헬싱키 장애인 재활원(Validia Kuntoutus Helsinki)

- 일 시 : 2015. 8. 24(월), 10:00
- 장 소 : 핀란드 헬싱키 장애인 재활원
- 테 마 :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 연구시찰 등

① 시설개요

○ 헬싱키 장애인 협회

- 1938년 설립
- 회원 1,843명(60세 이상 68%, 여성 53%, 10세이하 30%)

※ 핀란드 장애인 협회 구성

- 1938년 설치
- 154개 지회로 구성, 전국 지회 관리
- 회원 : 32,000명

○ 주요업무

- 사회 공동체 의식함양 및 동등한 가치 구현
- 사회 공동체 내에서 인간의 권리 보장
- 멤버 서비스(훈련, 문화교육, 주거제공, 교육 등)
- 여행지원, 장애인 주말별장 운영(유료), 홍보지 작성(연4회)

② 질의·응답

○ 장애인 지원정책 통로는?

- 장애인 정책결정은 각 지회에서 국회로 직접건의 → 제도화
- ※ 제도개선 관련 입법화 과정은 비슷한 실정
- 장애인 관련 비용은 무료가 원칙, 단 여가 부분은 유료

○ 본 협회에서 시각·청각장애까지 정책을 총괄하는지?

- 총괄하지는 않지만 장애 종류별 협회가 따로 있어 운영

- 협회 설명 시 직원 6명으로 2,100명을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 이곳만 6명이지만 본원까지 합하면 다수가 있음 이곳은 경제적(예산)분야와 홍보분야만 담당하고 있는 곳임
- 핀란드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구체적 설명?
 - 핀란드의 경우 부모가 장애인이지만 자녀는 비장애인 경우가 많음 또한 건강한 사람이 장애인과 결혼하는 비율이 높은점에서 다른 나라와 큰 차이를 보임
 - 장애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특별한 인센티브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로 맺어져 살고 있음 특히 장애인을 도와주자는 문화가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음
 - 기업에서 장애인 채용시 의무적으로 20%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직업과 기술 등 일 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되고 있음
- 어버이날 및 어린이날 행사는 어떻게 치르는지와 핀란드 여성권한에 대한 설명?
 - 가족 모두가 초청돼 함께 지내고 있음. 자녀들이 무척 좋아함. 핀란드의 경우 여성권한이 좀 강한 편임. 시장과 대통령을 여자가 지내기 하였고, 국회의원 200명 중 75명이 여성임

③ 시사점

- 각종 장애인 지원정책은 우리와 비슷함, 단 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및 동등한 가치구현이 문화로 나타남
-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투자와 교육 및 홍보 확대가 필요 또한 장애인 지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사실
- 장애인 지원예산을 비용으로 인식해서는 장애인 정책이 성공하기 못함.

핀란드 헬싱키 장애인 재활원(Validia Kuntoutus Helsinki)



▶ 핀란드 헬싱키 장애인 재활원 운영상황 청취 및 질의응답



▶ 재활원 직원과의 대화



▶ 기념품 전달



▶ 기념촬영

④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관광정보협회

- 일 시 : 2015. 8. 25(월), 11:00
- 장 소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관광정보협회
- 테 마 :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 연구시찰 등

① 협회개요

- 관광정보 협회
 - 20008년 설립, 러시아 최초 관광정보 서비스 조직
- 주요업무
 - 관광지,숙박,음식 등 관광정보 제공
 - 러시아와 국제 관광 전시회 및 컨퍼런스 참여
 - 관광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기관
 -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기준에 맞게 외국 관광 가이드의 인증구현

② 질의·응답

- 관광정보협회 운영 방향은?
 - 주요 세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국제 시장에서 러시아의 주요 관광 센터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인지도를 증가시키고, 두번째는 비즈니스 관광의 중심과 투자 처리를 위한 장소 부각 마지막으로 모든 관광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로 고객만족도 증진
-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오는 관광객수 파악과 숙박시 통계는?
 - 입국 수에 따라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안내 지도도 앞으로 제작 예정에 있음

③ 시사점

-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러시아 여행 및 관광산업 투자에 유리
- 러시아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러시아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관광정보협회 방문



▶ 상트페테르부르크 관광정보협회 현황청취 및 질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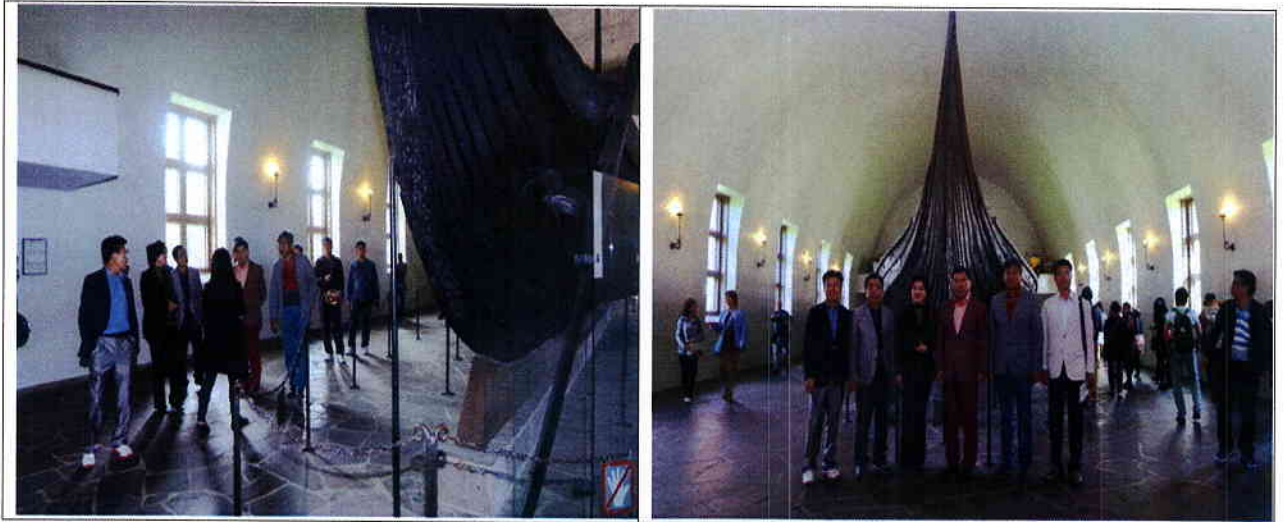


▶ 기념품 전달

⑤ 문화·관광시설 비교 견학

① 노르웨이 바이킹 박물관 견학

-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이 박물관에는 8세기부터 300년간 유럽에서 북미로 가는 북해의 해로를 따라 항해한 3척의 바이킹 무장선단의 선박이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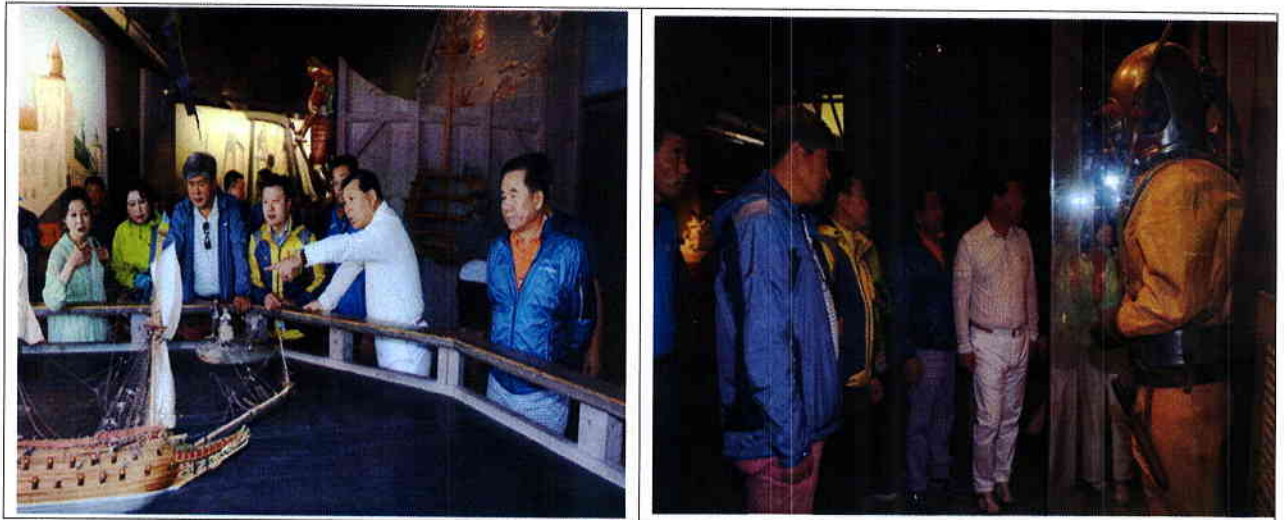
② 스웨덴 공공자전거 운영시설

- 청정한 환경, 건강, 교통비 절감을 위한 스웨덴 공공자전거 운영시설 방문해 대여방법, 이용현황 등 사례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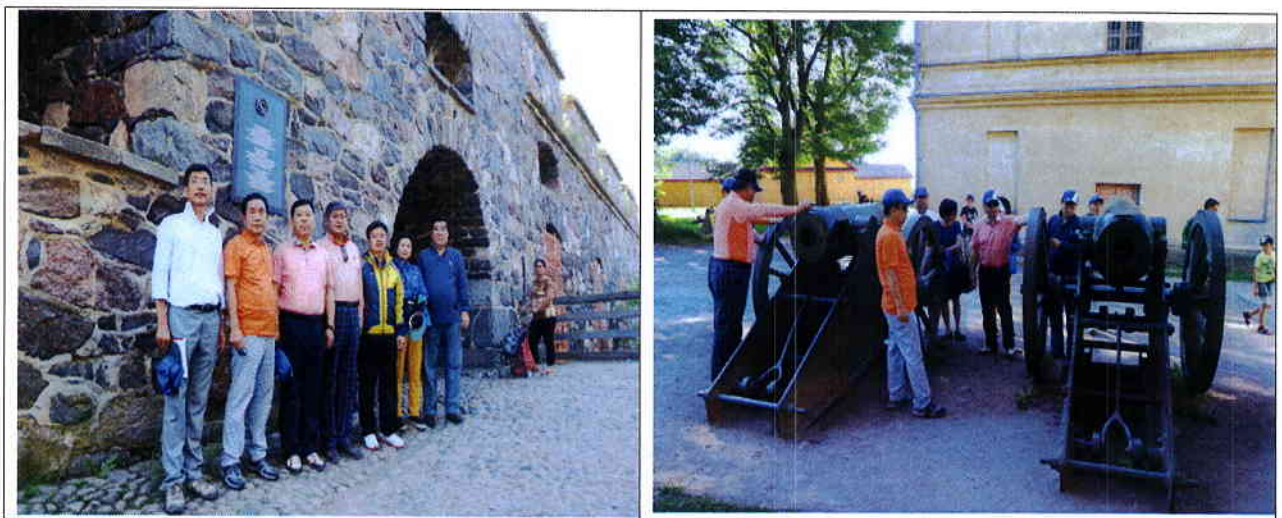
③ 스웨덴 바사 전함 박물관 견학

- 1625년에 건조되어 1628년 처녀 항해 때 침몰한 스웨덴 왕실의 전함 바사호를 1961년에 인양하여 1/10 크기의 모형과 바사호의 역사 등이 전시됨



④ 핀란드 헬싱키 수오멜린나 섬 탐방

- 1748년 스웨덴이 제정 러시아로부터 헬싱키를 방어하기 위해 6개의 섬을 연결해 지은 해상 요새 수오멜린나. 원래는 요새를 뜻하는 스베아보리로 불렸지만 핀란드가 독립한 후 1918년 '무장해제'라는 뜻의 수오멜린나로 이름을 바꿨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다



⑤ 러시아 에르미타쥬 국립 박물관 견학

- 1764년 예카테리나 2세가 서구로부터 226점의 회화를 들여왔던 것을 계기로 현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 미켈란젤로, 렘브란트와 루벤스 등 약 300만점의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는 세계 3대 박물관으로 알려진 에르미타쥬 박물관이다



⑥ 러시아 시민공원(여름궁전) 견학

- 러시아 제국의 위엄과 황제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러시아와 유럽 최고 건축가들과 예술가들이 총동원되어, 20여 개의 궁전과 140개의 화려한 분수, 7개의 아름다운 공원이 만들어졌다.



① 출산장려금 전액 국비지원 건의

□ 목 적

- 다자녀 출산 가정의 출산초기 급증하는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여 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

□ 문제점

- 우리도의 경우 시군별 금액이 상이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둘째아 이상 전 출산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계획으로 지속적인 복지관련 예산이 증가 전망
- 지역별 지원기준 및 금액 상이로 형평성의 문제발생, 국가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성 저하
- ※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가중

□ 정책건의

- 스웨덴 등 선진국의 경우 보육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모든 학생의 교육비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볼 때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
- 시도별 지원 기준 및 금액 상이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기준안 마련 시급

②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 건의

□ 현 실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에 따른 차량 구입 및 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은 없는 실정임

□ 문제점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탑승장비 장착차량 구입 및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법정대수 확보율 저조 및 지방재정 악화 심화

□ 정책건의

- 핀란드 장애인 고용률(54%)이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인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가 있기 때문이고,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투자로 보는 국민들의 의식이 있므로 국가의 장애인 지원정책의 극히 일부인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탑승장비 장착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국비지원 확대 건의

복지를 벤치마킹하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오 배 근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잠재적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정개혁과 함께 노동력 공급을 위한 청년·여성·중고령자의 고용확대는 물론 중장기적인 이민정책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그만큼 노인·청소년·여성의 다양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가야할 중점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보건, 문화체육관광, 여성가족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로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과 해결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9박11일의 길다면 긴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의 복지와 문화에 관련된 정책을 보고 배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비록 북유럽 국가와 우리나라는 국토의 면적, 인구, 자원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북유럽은 우리가 벤치마킹하기에 적합한 롤모델이라고 생각된다.

최근에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을 두고 선심성 외유, 혈세낭비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조심스럽게 국외 출장을 준비하였고, 이런 불신을 없애기 위해 모든 절차를 한국산업기술원에 위임하여 오직 보고 배우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방문지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다.

이번 출장은 짧은 기간 내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를 견학하는 다소 힘든 일정으로 첫날 노르웨이에 도착하는 데만 해도 12시간이 걸리고, 시차도 있어 체력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의원님들 모두 어려움을 감내하고 일정에 잘 따라주셔서 별 어려움 없이 무탈하게 출장을 마칠 수가 있었다.

출장 중 장시간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 앞차가 느리거나 막혀도 경적을 울리지 않고 기다려주는 시민들의 여유, 사람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무조건 사람을 우선시하고 자전거 도로에서는 자전거를 위해 사람은 보행자도로로 걸어가는 모습들에서 어쩌면 이런 것들이 이 나라들의 복지정책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하는 궁금증도 생겼다.

우리가 방문했던 기관 가운데 인상 깊었던 곳들이 많았는데 스톡홀름 어린이 보육시설 그리고 헬싱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스톡홀름 유아학교는 주로 공원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어 영유아들은 주변 공원을 자주 방문하여 자연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보았다.

영유아들에게는 3세 때부터 하루 3시간 무료로 학교에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모든 학생의 교육비는 국가에 납입하여 지자체를 통해 각 학교에 교육비가 제공되었는데 장애 영유아와 같이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하여 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에서 덩굴면서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흙 묻을까,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일정액 이상의 교육비에 대해 부모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아이들을 유아학교에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부럽기도 하였다.

Vates에 있는 헬싱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장애인 및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정부산하시설로 1993년에 설립되었는데 35개의 장애인 단체 및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부처들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재활교육, 고용방법 개발, 교육 및 컨설팅, 연구 및 프로젝트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런 기관의 노력으로 핀란드의 장애인 고용률은 54%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교육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열망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전체 장애인 가운데 상위수준의 2차 교육을 받지 못한 비율은 29%이고, 취업 장애인 가운데 2차 교육을 받지 못한 비율도 20%에 불과 하였다.

또한, 국가가 60개 민간 직업재활센터에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탁하여 이를 통해 약 65.9%가 고용되고 있었고, 사고로 장애를 얻었다면 우선 노동력서비스센터를 통해 직업재활활동을 연계

시켜 주는데 만약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면 장애인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이들에게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일 뿐이며, ‘모든 사람은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장애인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나라는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장치를 만들기 보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은 제거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곧 복지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곤하고 힘든 일정이었지만 돌아와 생각해 보니 10일이 하루처럼 지나간 거 같고, 여러 기관과 시설, 유적들을 돌아보면서 느끼고 배운 제도와 정책들이 너무도 많아 어떻게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스러우면서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 동행한 의원님들 또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를 돌아보면서 책이나 인터넷에서 느낄 수 없는 생생한 체험이 도정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북유럽에서 “복지정책” 답을 구하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김 종 필



나는 가장 행복한 것중 하나가 여행이다. 그것은 새로운 곳을 접해보는 설레움과 그곳만의 음식을 맛 볼 수 있으며, 평소의 일상에서 탈출한다는 자유감이 있어서다. 그래서 나는 1년에 한두 차례씩

해외여행을 즐기곤 하여 꽤 많은 나라를 다녀본 경험을 갖고 있다. 이번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복지국가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공무국외출장이 결정되어 졌는데 사실, 종전의 해외여행과는 사뭇 다른 마음이 들었고 무거웠다. 그것은 출장비용이 개인비용이 아닌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으로 다녀오기에 왠지 도민들에게 빚지는 기분이고 외부시선 등이 따갑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더 배워서 우리도 정책에 반영할 사항을 찾아야 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출발길에 섰다. 따라서 그곳에서 얻고 느낀 몇 가지를 공무출장 후기 답에 담고자 한다.

첫째는, 스칸다비아반도의 나라 노르웨이와 스웨덴, 핀란드는 다 알다시피 복지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의 농촌 풍경은 마치 달력에 나오는 그림과 같이 초원위에 펼쳐진 집들은 고즈넉하기를 넘어 평화롭기 그지없다. 하지만 이들의 풍족함이 대대로 선조로부터 내려 온 것일까 의문이다. 아니다. 8~11세기 무역과 해적의 역할까지한 바이킹들이 그들의 선조이다. 노르웨이는 69년도에 유전을 개발하면서 국민소득 10만 불이 되었고, 스웨덴은 100년 전부터 그들만의 창의성을 토대로 과학과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세계 100대 기업 중 5개를 보유하는 등 4만5천불의 국민소득을 얻고 있다고 한다.

이들 국가들도 60~100년 전에는 목축업과 수산업을 바탕으로 먹고 살았을 것이며, 북극과 가까운 기후 조건상 매우 어렵고 힘겹게 생을 이어 왔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인지 바이킹 후손답게 이들의 옷차림과 실 생활상 그리고 태도를 볼 때 매우 검소하며 직업정신이 확실함을 엿볼 수 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들 국가는 국민수(노르웨이 500백만, 스웨덴 950만 명)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총생산(GDP)을 계산해 보면 노르웨이는 우리나라의 1/10정도이며, 스웨덴은 1/2정도란 사실을 알 수 있고, 진정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국력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긍심과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실정이 좀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나라의 30~40년간 경제발전에 따른 풍족함에 젖어, 국가와 사회에서 무엇인가 해주기만을 기대하고 공짜만을 바라는 도덕적 헤이에 빠져가고 자기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며 공공을 생각하지 않는 풍토가 커져가는 우리의 현실들을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발전하는 것은 차치하고, 퇴보만 하지 않아도 다행이질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기우였으면 정말 좋겠다.

둘째로, 우리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노인복지시설(Tasen helsehus)을 보고 그곳에서 종사한분과의 인터뷰과정에서 얻은 정보 한 가지를 담고 싶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임종을 대부분 병원에서 하고 있으며, 그것은 죽음 전에 따르는 병환과 통증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노르웨이는 의사와 간호사 등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임종을 준비하는 사람을 치료하고 보살피는 제도가 있어서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 본인의 거처에서 편안하게 임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라하는 지방공사 의료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의료원은 일반 병원들과 거의 같이 일반 진료에만 힘쓰고 있으며 진정 공공의료는 말뿐인 사항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경쟁력 없이 적자만 내며 국가 예산만 축내고 있다. 이제는 일반 진료에서 벗어나서, 임종을 맞는 사람들에게 통증완화치료와 가정방문 치료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진정 공공의료라 생각되며, 존엄한 죽음과 건강보험 비용의 절감차원에서도 접근이 꼭 필요하다.

셋째로는, 스웨덴 스톡홀름 근교의 한 어린이 보육시설(Forskolan Rabacken)을 방문하여 보육 상황을 접하면서 얻은 한 가지를 열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집을 방문하여 보면 천편일률적 비슷한 교육시설과 기자재 그리고 놀이터를 볼 수 있다. 이곳의 놀이 시설중 큰 특징 중 하나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물건, 자연 그 상태로 시설에 옮기듯이 설치하고 아이들이 접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모래밭에 자연돌 징검다리를 놓았는데 아이들이 이곳에서 제일 많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릴 적 별다른 놀이 기구가 없을 때 주변 자연의 지형지물이 그대로 놀이터였듯이, 이곳의 놀이터에 그런 시설을 배치하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돌다리를 건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옷을 툭툭 털고 다시 도전하여 건너면서

재미있어하고 다 건넜다는 성공감으로 흐뭇해하며 웃는 아이의 모습이다. 이들은 비나 눈이 오더라도 그대로 비와 눈을 맞도록 하면서 자연학습을 강행하여 자연을 느끼고 교감하도록 한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자연과 친하게 하여 도전력과 적응력을 기르고 창의력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이란 틀에 집어넣고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선생님들이 안절부절못하며 돌보고 있다. 이렇다보니, 아이들이 성장하더라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전정신이 없으며, 사회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보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아이들을 더 강인하게 키워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강해질 수 있다고 본다. 아이들이 다치는 것 무서워 온실 속에 가둔다면 사회의 여러 가지 위험성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더 크게 다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가장 강한 자는 살아남는 자라고 하듯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과 인성을 가지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이번 해외공무출장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우리도의 정책에 반영하고, 우리 주위에 그 사실들을 전파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더 강화되고 도민의 삶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을 ..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이 공 휘



방송이나 활자를 통해서만 듣던 복지 강국, 스칸디나비아 반도 3국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직접 방문하게 되었다. 여행 말미에 러시아의 계획도시인 페테르부르크도 일정에 있었다.

가장 처음 느낌은 여유였다. 사람들 자체에서도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표정이었고 걸음걸이며 행동 자체가 기존 우리가 국내에서 함께 어울리며 지내던 사람들과는 다른 편안함 같은 것을 느꼈다고나 할까? 어쨌든 부럽기도 하고 같은 시각 대한민국에서 바쁘게 생활하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안쓰럽기도 하였다.

한반도의 1.7배인 노르웨이, 2.4배인 스웨덴, 1.5배인 핀란드 모든 나라가 넓은 영토에 500만 명, 940만 명, 540만 명의 국민들이 분포해서 살다보니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공간이 풍족해서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1/4밖에 안되는 국토에서 6천만명이 모여서 살고 있으니 좀 더 차지하려고 아웅다웅 다투고 싸우는 일이 빈번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나라로 치면 가장 금싸라기 땅인 시내에 커다랗게 조성된 공원에서 한가로이 일광욕을 즐기기도 하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의 여유가 좋았다. 중심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이 로타리로 만들어 천천히 돌아가는 차량을 보며 교통신호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 전기료까지도 절약되는 일석이조의 현상을 보았다.

도시를 만들 때 계획을 세우는 것과 발달된 돌 기술로 건물을 지어 기본이 2~3백년이 넘는 건물들, 최근에 세워진 비즈니스 빌딩외에는 시내도 주상복합으로 지어져 있고, 간판도 1층에만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며 참 많은 것이 비교되는 것을 느꼈다. 시내 중심권은 걸어서 돌아볼 수 있도록 계획 도시를 만들고, 돌로된 바닥, 인도, 상하수도 시설 등 내구연한이 백년 단위로 되었으니 내부 인테리어만 변경하면 되고 우리처럼 보도블록을 수시로 다시 깔지 않아도 되니 사회간접자본을 줄여 개인의 복지예산에 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이래저래 부러웠다. 후손들을 위한 문화유산을 계획해서 도시를 건설한 기획력은 현대의 우리도 본받아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공부를 하고 싶으면 대학원까지 학비 걱정없이 공부를 할 수 있고, 다른 기술에 소질이 있으면 기본 학교과정을 이수후 기술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한다고 한다. 직업을 전환하고 싶으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게 교육도 시켜주고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우리에게도 조만간 실현되기를 바랄뿐이다. 어느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15년~20년이 지나면 생활 수준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귀천을 따지기에 앞서 노동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저녁이나 주말이 되면 거의 모든 상점이 문을 닫으니 집으로 향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자연스레 늘어난다고 한다. 우리나라처럼 계모임이나 친목회 같은 모임 문화가 아닌 가족문화, 개인적인 취미활동으로 독서 또한 증가했으리라 생각한다.

산이나 나무는 비록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커다랗고 사람들 체구 또한 우리보다 크다. 규모를 따졌을 때 우리보다 훨씬 대범한 느낌도 받으니 순간 화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한 가지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복지 관련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구분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지난 임기동안 느꼈던 부분이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만들어 인위적인 구분기나 다문화라고 하여 따로 분리하는 정책 등에 대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번 연수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신을 갖게 되었다.

다 같은 국민이고 한 나라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라는 측면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있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장애’라는 단어, ‘다문화’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다 같은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사회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타인을 배려 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계나 자동차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사회적인 분위기를 체험하며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줄여 우리의 젊은이들에게도 다른 세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로 느끼며 글을 마칠까 한다.

① 노르웨이(NORWAY)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노르웨이는 낚시, 사냥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휴가를 보내기에 적합한 곳이다. 여러 종류의 레스토랑, 박물관, 다양한 축제, 웅장한 피오르드에서 즐기는 크루즈와 활기찬 문화를 접할 수 있다.

- 국 명 : 노르웨이 왕국(Kingdom of Norway)
- 수 도 : 오슬로(Oslo, 약 58.7만 명)('13.1)
- 면 적 : 약 32.38만km²
- 인 구 : 약 509만 명('13.1)
- 인 종 : 노르웨이인

② 스웨덴(Sweden)



스웨덴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9세기경으로 바이킹의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이다. 11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독립 국가를 이루었다. 한때는 스칸디나비아의 강국으로 핀란드와 노르웨이를 지배하기도 했었다.

- 국 명 : 스웨덴 왕국(Kingdom of Sweden)
- 수 도 : 스톡홀름(Stockholm)
- 면 적 : 약 450,294km²(한반도 약2배)
- 인 구 : 약 949만 명(2013)
- 인 종 : 스웨덴인(90%)

[3] 핀란드(Finland)



끝없이 펼쳐진 침엽수림, 세계에서 투명지수 1위의 명예를 누리고 있는 깨끗한 나라, 안손의 동화와 시벨리우스의 음악과 자일리톨 껌으로 우리에게 더더욱 가까운 나라, 핀란드! 하지만 늘 강대국에 밀려 자신을 지켜야 했던 아픈 역사의 단면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 국 명 : 핀란드 공화국(Republic of Finland)
- 수 도 : 헬싱키(Helsinki, 56만 명)
- 인 구 : 약 545만 명(2013)
- 면 적 : 338,145km²(한반도의 약 1.5배)
- 인 종 : 핀란드인(93%), 스웨덴인(6%)
- 언 어 : 핀란드어(91%), 스웨덴어(6%)

[4] 러시아(Russia)



매서운 눈보라가 사계절 계속해서 몰아칠 것만 같은 동토의 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를 이끌어 가는 4대강국의 하나였지만 공산주의국가라는 이유로 인해 실제적인 지리상의 거리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더욱 멀게만 느껴졌던 나라, 그렇긴 해도 영화 “백야”와 “닥터 지바고”의 낭만으로 애뜻하게 기억되기도 하는 곳... 일반적으로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 즉 구소련을 생각하면 먼저 떠올리게 되는

- 국 명 : 러시아 연방(Russian Federation)
- 수 도 : 모스크바(Moscow, 1,150만 명)
- 인 구 : 1억 4,290만 명
- 면 적 : 1,708만km²(한반도의 78배, 미국의 1.8배)
- 언 어 : 러시아어